

농가경제 살리고, 가계부담 줄이고

경진원, 전북생생장터 2월 프로모션 START

전 품목 20% 할인쿠폰 제공 등 세가지로 진행

전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이 14일부터 전북생생장터에서 다채로운 프로모션 운영할 계획이어서 도민들이 부담 없이 장을 볼 수 있도록 효과 역할을 북돋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 대표 지자체 온라인 쇼핑 물인 전북생생장터는 농가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가정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다. 올 2월에는 총 3

가지의 프로모션을 운영할 예정이다.

첫 번째 프로모션은 전북생생장터 회원을 대상으로 전 품목 20% 할인쿠폰 제공이다. 할인쿠폰은 전북생생장터에 입점해 있는 1500여개 상품에 적용이 가능하며, 최대 1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프로모션은 보물찾기 프로모션으로 전북생생장터 상품 상세 페이지에 숨겨진 이벤트 쿠폰을 찾을 시 행사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이다.

보물찾기 프로모션은 전북생생장터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소비자참여형 이벤트이다. 매월 2주차 4주차 화요일에 고정이벤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세페이지 속에 숨겨진 쿠폰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전북상품도 챙겨보고, 증정상품도 얻게 되는 1석2조의 프로모션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프로모션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이벤트이다. 전북은행과 농협은행 카드도 2만원 이상 구매 시 10% 청구할인을 최대 3만원까지 제공한다. 2월 프로모션으로 제공되는 할인 쿠폰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며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 포인트다.

아울러 전북생생장터에서는 작년 카

카오커머스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상품을 대상으로 매일 카카오북딩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일 인터넷 최저가로 익산의 햇갈고구마와 남원의 신선란으로 북딩행사를 운영한 바 있다.

경진원 관계자는 "전북생생장터를 통해 많은 도민들이 우리 전북상품을 찾아주시고 있어 전북 농가와 기업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찾아주시는 마음에 힘입어 더 신선하고 맛있는 전북 상품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채로운 프로모션으로 도민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오곡밥 한 그릇에 건강 한가득

조 '삼다찰' · 기장 '금실찰' · 팥 '아라리' 등 농진청, 맛 좋고 영양 풍부한 잡곡 품종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정월 대보름을 맞아 한해의 평안을 기원하며 먹는 '오곡밥'과 다섯 가지 잡곡의 종류, 건강 기능성에 대해 14일 소개했다.

오곡밥에 들어가는 잡곡의 종류는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식용 피가 오곡 중 하나였지만 요즘에는 찰쌀에 조, 기장 수수, 검정콩 팥을 섞어 오곡밥을 짓는다.

농진청은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잡곡 품종으로 조 '삼다찰', 기장 '금실찰', 수수 '소담찰', 검정콩 '청자호', 팥 '아라리'를 추천했다.

조 '삼다찰'은 찰쌀과 같은 찰진 특성을 지녔으며, 특유의 푸른색이 선명한 청자호이다. 메조인 황금조에 비해 아밀로스 함량이 낮아 혼반용으로 밥을 지었을 때 부드럽고 찰지며 밥맛이 좋다. 조에 함유된 비오틴은 스킨이나 머리카락, 피부 건강을 개선해 준다.

기장 '금실찰'은 밥알이 작고 찰기가 둔다. 흰 쌀과 섞어 밥을 지었을 때 노란색을 띠어 색깔이 좋고 밥맛도 우수하다. 기장은 모발에 유용한 영양소인 말리아신이 풍부해 탈모를 개선해준다.

수수 '소담찰'은 찰기가 있어 쫄쫄하고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아 오곡밥에 넣어 먹으

면 맛과 영양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잡곡이다. 재래종보다 키가 작아 기계제배가 가능한 품종이다. 수수는 체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여 비만 당뇨 등 생활습관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검정콩 '청자호'는 당도가 높고 밥에 넣어 먹었을 때 씹히는 맛이 뛰어나다. 동물성지방, 지방 및 대사증후군 예방 효과도 입증된 품종이다. 검정콩은 인토시아닌이 풍부하여 노화를 예방하고 비타민(B)과 비타민 케이(K)가 풍부하다. 필수아미노산과 이소플라본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골다공증이나 동맥경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팥 '아라리'는 붉은색을 띠고 특유의 향과 맛이 뛰어나 오곡밥의 풍미를 살려준다. 기계수확이 가능한 품종이다. 팥은 칼륨이 많아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고, 팥에 들어있는 스킨이나 머리카락, 피부 건강을 개선해 준다.

농촌진흥청 발자취개발과 정찬식 과장은 "오곡밥은 한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정월대보름에 선조들이 먹었던 건강식품"이라며 "평소에도 오곡밥에 들어가는 잡곡을 꾸준히 섭취하면 각종 생활습관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올 상반기 농식품

마케팅대학 교육생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농식품 산업을 선도하고 유통 혁신을 이끌 인력 양성을 위해 2022년 상반기 농식품 마케팅대학 교육생을 3월 2일까지 모집한다.

농식품 마케팅대학은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농식품산업 분야 장기 전문 교육과정으로, 이번엔 모집하는 교육은 농산물 CEO MBA(1년), 농산물 마케팅 전문가(6개월), 농식품 온라인 유통 경영인(6개월) 3개 과정이다.

교육은 3월 15일부터 7월 7일(CEO MBA는 12월 6일)까지 진행되며, 학계·관련 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사 마케팅 전략 수립, 경영환경 트렌드, 온라인 상품화 전략, B2G 이해 및 사례연구 등에 대해 강의하며, 워크숍 및 국제·외 연수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메타버스 라이브 커머스 빅데이터 등의 실무능력 향상 교육을 통해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B2G경영에 대한 교과목을 확대 편성하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핵심 가치를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업체를 통한 주기적인 방역과 함께 교육원의 모든 방문자를 대상으로 열감지 카메라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 등을 준수하여 교육을 운영한다. 한편, 교육과정별 성적 우수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공사 사장상 등이 수여되며, 수료 후에도 교육생을 대상으로 농식품 유통 관련 최신 지식과 현장정보 등을 지속 제공한다. /최대희 기자

농업인 실익증대 통한 지속가능 농업발전 구현

전북농협 '경제지주 5UP 시범사업 추진 결의대회'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잘 사는 농업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2022년 '경제지주 5UP 시범사업 추진 결의대회'를 14일 농협전북본부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사업 관련 5개 부문에서 지역본부와 농협협이 협업체 중앙정부와 지방자



전북농협은 잘 사는 농업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2022년 '경제지주 5UP 시범사업 추진 결의대회'를 14일 농협전북본부 회의실에서 가졌다.

농협 전북검사국, '농·축협 디지털 감사' 본격 착수

디지털 감사시스템 활용 예비·본감사 나눠 진행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전북검사국(국장 최한호)은 14일 북전주농협 법조타운지점과 고흥지점을 시작으로 2022년 농·축협 디지털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검사국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디지털 감사에 총 110개 감사대상 사무소 중 약 20%인 21개 사무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해 구축된 '디지털 감사 시스템 (NH-DNA)'을 활용

해 예비감사와 본감사로 나눠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비감사 기간에는 수감사무소의 재무제표 및 경영지표, 위험지표를 분석해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본감사 기간에는 '쌍방향 자료 공유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감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에 있는

차단체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현장 중심 자체 시범사업을 발굴 유통혁신과 농업인 실익증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다짐했다.

전북농협은 ▲광역 단위 품목 육성을 통한 산지경쟁력 강화 ▲스마트 공선회 육성, 드문도 심기 확대 등 농업인 영농편의 확대 ▲예담체, 참예우, 심리향 등 지역 광역브랜드 마케팅 강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채널 다변화로 농산물 유통 혁신 ▲전북인산 소비자친진 운동과 국내산 치즈 재변화대를 통한 농식품 부가가치 증대 등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5개 부문을 선정하고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100년 농협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으로 현장중심 시범사업 도입은 필수"라면서 "전 직원이 농업인과 함께 호흡할 때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시기에 비대면 감사를 확대해 임직원과 고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감 사무소가 사업 추진에 매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한호 국장은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디지털 감사를 통해 농·축협 사고예방은 물론 새로운 디지털 감사 기법을 활용하여 감사업무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농·축협과 함께 감사 본연의 정체성을 갖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디지털 감사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